



[경제종합]  
현대차 등 4개사  
'수소 동맹'  
2030년까지 41조 투자  
04



코스피 3224.64 (+8.46)	↑	코스닥 987.77 (+8.98)
금리 (국고체 3년) 1.282 (+0.145)	↑	환율 (원·달러) 1115.80 (+0.40) (10일)

## m-커버스토리

# 숨죽인 동학·서학개미 박스권 시장에 관망

### 힘 빠진 증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증시 열풍은 잠시 시들해졌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박스권에 갇혀있던 증시가 다시 오름세를 탔음에도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연초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학개미운동'을 통해 국내 증시의 주요 축으로 자리한 개인투자자의 힘이 급격히 빠진 모습이다.

#### ◆ 방향성 없는 증시… 눈치보는 개미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까지 국내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25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42조1072억원에 달했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2월 32조3771억원까지 급감한 뒤 3월부터 20조원대 수준을 유지 중이다.

#### 국내 주식 일 평균 거래 대금 1월 42조서 20조원대로 급감

#### 코스피 최고치에도 '눈치보기' 유입강도 낮을 뿐 자금 풍부

지난해 12월 706조3760억원에 달했던 시장 거래대금은 올해 1월 842조1455억원까지 치솟으며 활황세의 정점을 기록했다. 그랬던 거래대금은 2월 500조원대까지 급감한 후 둘 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다 지난달 482조4882억원까지 감소했다. 1월과 비교하면 43% 가량 빠진 수치다.

연초 상승세 이후 한동안 박스권에 갇혔던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주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감소한 것은 매매 회전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나 매도 등 특별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전보다 시장 열기가 식은 이유로는 가상화폐 투자의 유행, 공매도 재개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매수 주체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최근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 7일 3252.12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스

꼽는다. 최근 수급상황을 요약하면 지난달 8조4000억원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의 매도강도는 약해졌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0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의 매수세도 다소 찾아든 상황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라며 "눈치보기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증시는 상승하고 있지만 주도주로 불릴 만한 종목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것도 같을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을 무시한 오름세를 보여왔던 지난 1년과는 달라진 모습"이라며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이 높은 종목을 피하고 폭넓게 증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최근 증시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종목, 업종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이라며 "가치주와 성장주, 금융과 기술주, 낙관론과 비관론 등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유동성이 이탈하는 국면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개인의 신규 유입강도가 낮아진 수준일 뿐 증시 주변 자금은 여전히 풍부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성 자금이 투자자예탁금은 67조 1249억원이다. 매수 열기가 뜨거웠던 올해 1월 평균(68조171억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시장에서도 하반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2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

##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믿고 동참해준 국민 덕분에"… 백신 1차 접종 1000만명 넘어
- ▲ 김부겸 총리 "원시적인 사고에 국민 희생돼 죄송… 원인규명 최선" /사진 뉴시스

# SKT, 통신·투자사로 인적분할

### '뉴 SKT 시대' 개막

1주 500원 → 100원 액면분할  
존속-신설회사 6대 4로 나뉘

SK텔레콤이 37년 만에 통신회사와 투자회사로 조개진다. 그간 SK그룹의 오랜 숙제로 손꼽혀온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다.

SK텔레콤이 10일 이사회를 열고 존속회사인 SK텔레콤과 신설회사인 SKT신설투자(가칭)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회사 0.6073625, 신설회사 0.3926375로 결정됐다.

이번 인적분할로 현 SK텔레콤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인공지능(AI)

I). 디지털 인프라 회사와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술 투자전문회사로 재탄생한다. 존속회사의 사명은 'SK텔레콤'을 유지할 계획이며, 신설회사 사명은 임시주주총회 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오는 10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분할기일인 11월 1일에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주식 매매거래정지 기간(10월 26일 ~ 11월 26일)이 종료되면 11월 29일에 변경상장(존속회사) 및 재상장(신설회사) 된다.

#### ◆ 투자 접근성, 기업가치 상승 기대감

SK텔레콤은 주주들의 투자 접근성과 기업가치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인적분할과 동시에 액면분할을 추진한다. 액면분할을 통해 현재 액면가 500

원인 보통주 1주는 액면가 100원인 5주가 된다.

SK텔레콤 발행 주식 총수는 현재 7206만143주에서 3억6030만715주로 늘어나며, 이는 인적분할에 따른 약 6대 4분할비율대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나뉘진다. SK텔레콤은 액면분할을 통해 주주 구성 측면에서 소액주주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는 투자자는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주'로 털바꿈한다는 목표다. 최근 액면분할을 시행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액면분할로 인한 주당 가격 하락이 거래량, 주가, 시가총액 상승을 이끄는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4면에 계속>

/체운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고개숙인 정동규 HDC 회장

정동규(오른쪽) HDC 회장과 권순호 대표이사 사장, 하원기 건설본부장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10일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를 표명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

# 삼성전자, '이미지센서'도 초격차… 소니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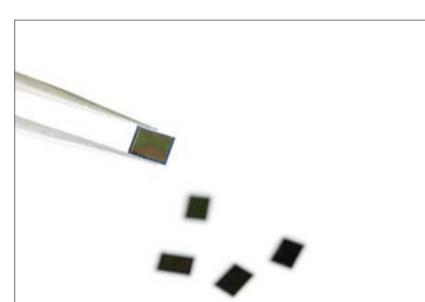
0.64㎛ 픽셀 '아이소셀 JN1' 출시  
면적 16%, 모듈 높이 10% 최소화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 미세 공정 한계를 다시 한 번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픽셀 크기가 0.64㎛(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이미지센서 신제품 아이소셀 JN1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종전까지 가장 작은 픽셀이었던 0.7マイ크로미터를 넘어선 것. 면적도 16% 줄이고 모듈 높이를 10% 낮출 수 있어 고성능이면서도 크기가 작고 돌출도 최소화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업계 1위인 소니 기술도 다시 한 번



아이소셀 JN1. /삼성전자

수 있게 됐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 19.6%를 기록했다. 소니(49.8%)에 비하면 아직 저조한 수준. 그러나 2019년과 대비해 격차가 35.4% 포인트에서 30.2% 포인트로 크게 줄었고, 중국 등 아이소셀 이미지센서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점유율 격차는 더욱 좁혀질 전망이다.

픽셀 크기 외에도 아이소셀 JN1은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어두운 환경에서도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소셀 2.0', '인터신 HDR', '더블 슈퍼 PD' 등이다. <4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



▲ 조수진 "여군 사망 책임 용의 있나"… 서욱 "인사권자 결정" /사진 뉴시스

▲ 공수처, 윤석열에 칼 빼다…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 ▲ '믿고 동참해준 국민 덕분에'… 백신 1차 접종 1000만명 넘어
- ▲ 김부겸 총리 "원시적인 사고에 국민 희생돼 죄송… 원인규명 최선" /사진 뉴시스
- ▲ '문고 더블로' 간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권익위에 특검 수용 의견까지